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서유기

XI
YOU
JI

오승환
안익아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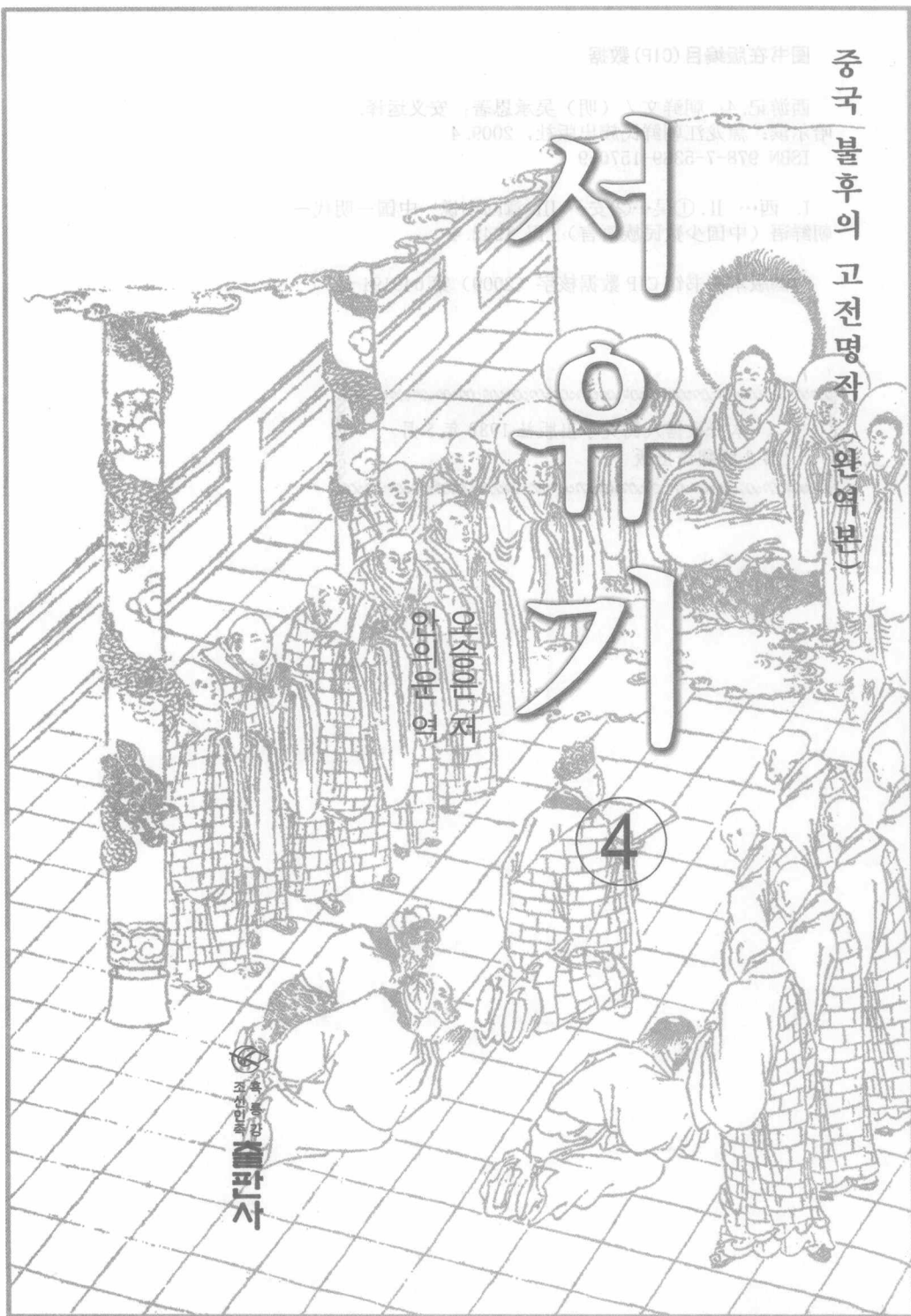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서유기

이정호 역
한어판

4

북경출판사
北京出版
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西游记. 4: 朝鲜文 / (明) 吴承恩著; 安义运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70-9

I. 西… II. ①吴…②安… III. 章回小说—中国—明代—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191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80 年 5 月
第 2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76 회 오공은 마왕의 배속에 들어가 마왕을 굴복시키고
팔계는 오공과 함께 마왕의 진상을 발가놓다 /1
- 제 77 회 마왕들은 본성(本性)을 기롱하고
손오공은 홀몸으로 진여(真如)를 배례하다 /19
- 제 78 회 비구국에서 가련한 아이들이 음신을 움직이고
금란전에서 요괴를 간파하여 도덕을 론하다 /39
- 제 79 회 동굴을 찾아 요괴를 잡다가 수성을 만나고
국왕을 옹바른 길에 이끌어 아이들을 구해준다 /56
- 제 80 회 요녀는 양기를 길러 배우자를 구하고
오공은 주인을 지켜 요괴를 알아보다 /70
- 제 81 회 진해사(鎮海寺)에서 오공은 요괴의 정체를 알아내고
흑송림(黑松林)에서 제자들은 스승을 찾아헤매다 /88
- 제 82 회 요괴는 애써 삼장의 양기를 얻으려 하고
삼장은 도를 지켜 요괴의 유혹을 물리치다 /105
- 제 83 회 오공은 요녀의 근본을 알아내고
요괴는 마침내 본성을 되찾다 /124
- 제 84 회 기도는 불멸의 깨달음을 이루어지게 하고
국왕은 바른길로 돌아와 본성을 지키다 /140
- 제 85 회 오공은 부질없이 저팔계를 놀려먹고
요괴는 계책을 써서 삼장을 채여가다 /158
- 제 86 회 팔계는 위풍을 떨쳐 요괴를 징벌하고
오공은 신통력을 부려 마왕을 족치다 /178
- 제 87 회 불선군은 하늘의 노염을 사서 가물이 들고
손대성은 선행을 권하여 단비를 내리게 하다 /196

- 제 88 회 삼장은 옥화땅에 이르러 법회를 열고
오공네들은 기꺼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다 /214
- 제 89 회 황사정(黃獅精)은 부질없이 정과연을 열고
손오공은 계책으로 표두산을 들이치다 /231
- 제 90 회 스승도 사자도 종내는 한길에 들어서고
도적도사 구령정은 마침내 길들여지다 /247
- 제 91 회 금평부(金平府)에서 대보름날 등불구경을 하고
현영동(玄英洞)에서 당삼장은 고소장을 내다 /264
- 제 92 회 세 제자는 청룡산에서 싸움을 벌이고
네 성신은 서우요정을 붙잡아내다 /281
- 제 93 회 급고원(給孤園)에서 옛일을 물어 인과를 론하고
천축국(天竺國)에서 왕을 만나 사위감으로 되다 /299
- 제 94 회 네 중은 어화원에서 즐겁게 노닐고
한 요괴는 부질없이 정욕에 모대기다 /317
- 제 95 회 가짜가 진짜와 합치려다 옥토끼 붙잡히고
월궁상아 바른길에 들어 령원과 합쳐지다 /333
- 제 96 회 구원외(寇員外)는 기꺼이 고승을 환대하고
당삼장은 끝까지 부귀를 멀리하다 /347
- 제 97 회 삼장은 은혜를 갚다가 마독을 만나고
오공은 유혼을 나타내어 본원을 구하다 /364
- 제 98 회 원숭이와 백마는 마침내 속세에서 벗어나고
공과가 이루어져 삼장은 여래와 만나다 /385
- 제 99 회 여든하나의 수난이 차서 모든 요괴 쓰러지고
아홉 수행이 끝나 도가 근본으로 돌아가다 /406
- 제 100 회 불경은 마침내 동녘땅에 전해지고
다섯 성인은 정과를 얻어 진인이 되다 /419

제 76 회

오공은 마왕의 배속에 들어가 마왕을 굴복시키고
팔계는 오공과 함께 마왕의 진상을 발가놓다

오공이 마왕의 배속에서 한바탕 야료를 부리는통에 마왕은 땅바닥에 쓰러진채 죽은듯이 꿈쩍하지 않았다. 이젠 숨이 켜나보다 생각하고 오공이 손을 떼자 마왕은 비로소 숨을 돌리고 오공에게 빌었다.

“대자대비하신 제천대성보살님!”

오공은 마왕의 배속에서 소리쳤다.

“이놈아,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어르신님을 외할아버님이라고 불러라.”

마왕은 목숨이 아까와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수 없었다.

“외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멋모르고 당신을 삼켰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대성님께서 자비심을 베푸시고 개미새끼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다면 저희들이 당신의 스승님을 산밖으로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오공이 비록 영웅이기는 하지만 삼장의 감화를 깊이 받은터이라 요괴가 이처럼 애걸을 하며 빌붙자 마침내 선심이 일고말았다.

“이놈아, 용서는 해주겠다만 네가 어떻게 우리 스승님을 모셔다드릴 생각이나?”

“저희들에게 금, 은이나 비취, 마노, 산호, 류리, 호박, 대모 같은 진귀한 보물은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 삼형제가 등나무교의로 당신의 스승님을 태워 이 산을 넘겨드리지요.”

오공은 만족스레 웃으며 대꾸하였다.

“가마로 모셔다드리겠다면 그건 보물을 주는것보다 낫지. 그럼 아가리를 벌려라. 밖으로 나가주마.”

마왕은 입을 크게 벌리었다. 그러자 셋째마왕이 가까이 다가와 큰마왕에게 귀뜸하였다.

“형님, 그놈이 밖으로 나을적에 제격 입을 다물어 그놈을 씹어서 도로 삼키시구려. 그러면 다시는 형님을 해치지 못할거요.”

마왕의 배속에서 그 말을 엿들은 오공은 잠시 나가지 않고 먼저 금고봉을 내뻗쳐 시험해보았다. 마왕은 그런줄을 모르고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러자 우직하는 소리와 함께 앞이가 부러져나갔다. 오공은 금고봉을 거두어들이며 소리를 질렀다.

“돼먹지 못한 요괴녀석 같으니! 내가 네놈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도 네놈은 도리어 나를 씹어서 죽일 작정이냐? 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네놈을 죽여버리고말테다! 안 나간다, 안 나가!”

큰마왕은 셋째마왕에게 꾸밈을 하였다.

“여보게 아우, 이젠 제 집식구가 제 집식구를 망친 셈일세! 그저 순순히 나오게 놔두었다면 좋았을것을 왜 나더러 깨물라고 했나? 결국 남을 물지도 못하고 부질없이 앞이만 부러뜨렸으니 이 일을 어떡 한단 말인가?”

큰마왕의 핀잔에 셋째마왕은 일부러 오공의 비위를 긁었다.

“손행자, 듣자니까 너는 언젠가 남천문밖에서 위풍을 떨치고 령소보전아래에서 이름을 날렸다지. 그런데 오늘 서천길에서 요괴를 퇴치하는걸 보니 원래는 좀살곳은 원숭이녀석이였구나.”

아닐세라 오공은 참지 못하고 발끈 화를 내었다.

“어째서 내가 좀살곳다는거냐?”

“대장부가 천리길을 나서면 만리에 이름을 떨친다고 했어. 네가 정말 대장부일것 같으면 어서 밖으로 나오너라. 내가 너하고 한번 겨루어볼테니. 무엇때문에 남의 배속에 들어가 좀되게 노는거냐?”

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음, 그렇기도 하겠다. 내가 지금 이놈의 창자를 잡아꿋고 간을 으깨여 죽여버리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랬다간 내 명성이 더러워질것이다. 에라! 그만두자.)

그리고는 큰소리로 웨쳤다.

“그럼 이 녀석아! 어서 아가리를 벌려라! 내가 나가서 네놈과 겨루어볼테니. 그렇지만 동굴어구는 너무 비좁아 틀렸으니 무기를 마음대로 다룰수 있는 널직한 곳으로 나가서 해보자.”

셋째마왕은 크고작은 요괴 3만명을 불러다 앞뒤에 빈틈없이 둘러세웠다. 저마다 무장을 갖추고 진세를 벌렸다가 오공이 마왕의 입에서 나오는대로 일제히 달려들 잡도리였다.

둘째마왕은 큰마왕을 부축하여 동문밖으로 나왔다.

“손행자! 네가 대장부라면 어서 나오너라! 여기는 널직하여 싸우기 좋을것이다!”

마왕의 배속에서 오공은 밖에서 나는 까막까치의 지저귀고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왕이 이미 널직한 곳으로 나와있는것을 알았다.

(내가 나가지 않게 되면 신용이 없는자로 될거고 그냥 나갔다면 또 저 요괴의 흉계에 빠지기 쉽지. 아까도 스승님을 모셔다준다고 나를 속여놓고는 내가 나갈적에 깨물 생각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저놈들이 여기에다 군사를 풀어놓지 않았는가. 그러니 나가진 나가더라도 실수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해놓고 나가자. 음, 배속에다 뿌리를 박아놓고 나가면 되겠구나.)

오공은 얼른 꼬리에서 터럭 한대를 뽑아 선기를 붙여넣고 소리쳤다.

그러자 터럭은 굵기가 머리카락만하고 길이가 4백여자가량 되는 노끈으로 변하였다. 노끈은 바람을 만나자 이내 또 굵어졌다. 오공은 노끈의 한쪽끝을 마왕의 엄통에다 비끄러매고 나비매듭을 지어놓았다. 그 매듭은 당기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지만 당기기만 하면 조여들어 몹시 아파나게 되어있었다. 오공은 그 노끈의 다른 한쪽끝을 쥐고 밉그레 웃었다.

(이번에 나가서 이놈이 순순히 스승님을 모셔다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엔 내가 이놈들과 싸우고 어찌고 할것없이 이 노끈부터 잡아당길테다. 그러면 내가 배속에 있는거나 마찬가지로일거니까.)

그리고는 몸을 더 작게 줄이여 밖을 향해 기여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마왕의 목젓어구에까지 기여올라가보니 짝 벌린 아가리에는 톱날같이 날카로운 이발이 아래우로 촘촘히 박혀있었다.

(안되겠다! 이 아가리로 나가면서 노끈을 잡아당겼다가 이놈이 아픈김에 입을 다물어 노끈을 끊어놓기가 쉽지 않겠는가! 이발이 없는데로 해서 나가자.)

오공은 노끈을 간중그러가지고 입천정을 거쳐 코구멍안으로 기여 들어갔다. 갑자기 코구멍이 간지러워진 마왕은 “아취!” 하고 채채기를 하였다. 그통에 오공은 밖으로 뿌려져나갔다.

밖으로 나온 오공은 바람을 향해 허리를 감죽거리 키를 30척가량 되게 늘이더니 한손에 노끈을 쥐고 다른 한손에 철봉을 꼬나들었다. 마왕은 오공이 나온것을 보더니 다짜고짜 칼을 들어 오공을 내리쳤다. 오공은 한손으로 철봉을 휘둘러 마왕의 칼을 막았다. 그러자 창을 든 둘째마왕과 극을 쥔 셋째마왕이 또 일시에 달려들었다. 오공은 얼른 노끈을 늘이고 철봉을 거두어들이며 급히 구름을 날려 몸을 피하였다. 수많은 요괴들이 일시에 달려들면 막아내기가 불편할것이기때문이었다.

포위망을 빠져나온 오공이 구름을 낮추어 산정우에 내려서며 노끈을 힘껏 잡아당기자 마왕은 또다시 가슴이 아파났다. 마왕이 아픔을 못 이겨 몸을 솟구쳐올리자 오공은 또 노끈을 아래로 힘껏 잡아당겼다. 그것을 본 요괴들은 멀리서 일제히 소리쳤다.

“대왕님, 더 그놈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놔두십시오! 절기도 모르는 저 원숭이놈은 청명이 아직도 멀었는데도 벌써 연을 띄우고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공은 노끈을 힘껏 끌어당겼다가 갑작스레 늦추었다. 그바람에 마왕은 공중으로부터 물레바퀴같이 뱅그르르 돌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나떨어졌다. 마왕이 떨어진 그 산기슭에는 당장 두자 남짓한 깊이의 구멍이가 패워졌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둘째마왕과 셋째마왕은 일제히 구름을 낮추어 노끈을 거머잡고는 산기슭에 무릎을 꿇고 오공에게 빌었다.

“대성님! 당신은 도량이 바다같이 넓은 신선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어찌면 소인배와 같이 노시는겁니까? 사실 저희들은 당신을 유인해내어 한번 승부를 겨루어볼 생각이였습니다만 당신이 큰형의 염통에다 노끈을 매여놓았을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공은 꺄꺄 웃었다.

“요괴놈들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아까는 나를 속여서 깨 물어죽일 생각이더니 이번엔 진세를 벌려놓고 때려죽일 작정이로구나. 이렇게 몇만명이 한테 모여서나 한 사람을 대적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안된다. 난 이대로 이놈을 스승님한테로 끌고 갈테다!”

마왕들은 또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대성님, 부디 자비심을 베풀어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꼭 당신의 스승님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오공은 여전히 껄껄 웃었다.

“살고싶거든 칼로 그 줄을 끊어버리려무나.”

“나리님! 밖에 드러난 부분은 잘라낼수 있겠지만 안에 남은 부분은 그냥 염통에 매여서 자꾸만 목을 간지럽히여 구역질이 날테니 어떡합니까?”

“그럼 아가리를 벌려라. 내가 다시 들어가 노끈을 풀어줄테니.”

오공의 이런 말에 마왕은 텐겁을 하였다.

“이번에 들어가셨다가 아예 나오지 않으시면 큰일이 아닙니까?”

“내게는 밖에서도 풀어낼만한 재간이 있다. 풀어주면 정말 우리 스승님을 전송해드릴테냐?”

“풀어만 주시면 어김없이 바래다드리겠습니다. 누구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듣고난 오공은 몸을 떨어 터력을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마왕의 아픔도 이내 멎었다. 워낙 범술을 써서 터력을 마왕의 염통에 매었던것인만큼 터력을 거두자 자연히 아픔도 멎었다.

세 마왕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오공에게 감사를 드렸다.

“대성님께선 먼저 돌아가셔서 당승님께 말씀드리고 행장을 준비해놓으십시오. 저희들은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곧 모셔다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요괴들은 싸움을 파하고 모조리 동굴로 되돌아갔다.

오공이 노끈을 거두어들이고 산의 동쪽으로 돌아들며 보니 멀찌감치에서 삼장이 땅에 쓰러져 통곡을 하고있고 팔계와 오정은 보짐을 풀어놓고 행장을 두뭇으로 나누고있었다. 오공은 속으로 한탄을 하였다.

“더 물어볼것도 없이 저건 팔계녀석이 스승님에게 내가 요괴한테 먹히었다고 말을 낸 때문일것이다. 그래서 스승님은 지금 나를 생각

하여 울고있고 팔계녀석은 물건을 나누어가지고 흩어지려는것이리라.
음, 정말 그런판인지 어디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보자.”

“스승님!”

오공을 알아본 오정은 팔계를 나무랐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죽지도 않은 큰형을 죽었다면서 이따위짓을 벌리다니! 지금 큰형이 저기서 부르고있잖아?”

“난 그가 요괴의 입안으로 들어가는걸 분명히 보았어. 아마 때가 좋지 못해 원숭이의 혼령이 찾아온게로구나.”

팔계의 이런 말에 오공은 한결음 다가와 팔계의 먹살을 거머잡고 뺨을 한대 호되게 후려쳤다.

“미옥한 녀석 같으니! 내가 무슨 놈의 혼령이란 말이나?”

팔계는 얼굴을 싸쥐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형, 형은 확실히 요괴에게 먹히웠더랬는데 어떻게 되살아난거야?”

“너같이 쓸모없는 밥통은 정말 처음 보겠다. 그놈이 나를 삼키자 나는 그놈의 창자를 집어뜯고 폐를 꼬집고 또 노끈으로 그놈의 엄통을 매여 잡아당겼더니 그놈은 아프다못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 지금 그놈들은 가마를 가지고 와서 스승님을 전송해드릴 차비를 하고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삼장은 벌떡 일어나 오공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제자야! 정말 수고가 많았다. 만일 오놈의 말만 들었더라면 나는 이미 끝장나고말았을거다.”

오공은 주먹으로 팔계를 옥박질렀다.

“이 녀석아, 그렇게도 사리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구실을 하겠느냐? 스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놈들이 곧 스승님을 모시러 올겁니다.”

오정도 창피함을 금치 못하였다.

둘 서둘러 행장을 꾸리고 말잔등에 안장을 엮고난 일행은 요괴들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있었다.

한편 세 마왕은 모든 즐거움을 데리고 소굴로 돌아왔다.

“형님, 난 손행자가 구두팔미(九頭八尾)의 거물일줄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코딱지 같은 원숭이놈이구려. 형님은 그놈을 삼키지 말았어야 할걸 그랬소. 직접 맛볼어 겨루게 되면 그놈은 형님이나 나의 적수가 못될거요. 그리구 몇만명이나 되는 우리 졸개들이 침만 뱉어도 아마 그놈은 빠져죽게 될거요. 그런걸 형님이 그놈을 배속에 삼켜서 범술을 부리게 했으니 골탕먹을수밖에 더 있소? 방금 내가 당승을 전송해주겠다고 한건 형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놈을 속인거요. 우리가 당승을 놓아보내다니 될법이나 한 일이요!”

“당승을 놓아보내지 않겠다니 무슨 수라도 있나?”

“나한테 졸개 삼천명만 맡겨주면 진세를 벌려 그 원숭이놈을 잡아낼 자신이 있소.”

“삼천명이 아니라 본영의 군사를 다 데리고 간대도 상관없네. 그놈을 잡아낼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의 공로인 셈이니까.”

둘째마왕은 곧 3천명의 졸개들을 데리고 나가 큰길 양쪽에 쪽 벌려세웠다. 그리고는 푸른 기발을 든 졸개 하나를 띄워 큰소리로 웨치게 하였다.

“손행자! 어서 나와 우리 둘째대왕님과 승부를 겨루어봐라!”

팔계가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며 말했다.

“형, 상말에 ‘거짓말도 한고향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 왜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놀려먹는거야? 요괴를 항복시켜 가마로 스승님을 모셔가게 했다더니 어째서 또 저것들이 찾아와 싸움을 거는 거야?”

“늙은 요괴놈은 이미 나한테 항복을 한터이라 감히 나서지 못할 거다.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거니까. 이걸 틀림없이 둘째마왕이 우리를 놓아보내기 달갑지 않으니까 싸움을 걸어온걸거다. 애, 요괴들은 모두 삼형제인데 의협심이 저처럼 강하구나. 하지만 우리 삼형제한테는 저런 의협심이 없단 말이다. 내가 큰마왕을 항복시켰다만 이번엔 둘째마왕이 나서는구나. 네가 나가서 저놈과 한번 겨루어보는 게 어떠냐?”

“아무렴, 내가 그깟 놈을 겁낼가? 내가 가서 그놈을 족쳐놓고 오지.”

“그럼 어서 가봐라.”

오공의 재촉에 팔계는 녀살 좋게 웃었다.

“형, 내가 가기는 하겠지만 형의 그 노끈을 좀 빌려 줄수 없겠어?”

“그건 해서 무얼 하려느냐? 너는 남의 배속에 들어가는 채주도 없고 또 설사 들어간대도 그것을 염통에다 비끼려멜 재간도 없지 않느냐?”

“난 그걸 허리에 둘러서 구멍줄로 삼으려는거야. 형이 오정과 함께 한쪽끝을 잡아주면 난 나가서 마음놓고 그놈과 싸우겠어. 그래서 내가 그놈을 이길것 같으면 끈을 늦추어서 내가 그놈을 잡도록 하고 내가 질것 같으면 나를 얼른 끌어당겨 그놈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오공은 속으로 웃지 않을수 없었다.

(어디 이놈을 한번 골려줘보자.)

오공은 노끈을 팔계의 허리에 매여주며 나가서 싸우게 하였다.

팔계는 갈퀴를 내들고 고개우로 치달아올라가 큰소리로 웨쳤다.

“요괴놈아! 어서 나오너라! 나와서 이 저나으리와 한번 승부를 겨루어보자!”

푸른기를 든 줄개가 급히 마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님, 입이 뿔죽하고 귀가 큰 중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둘째마왕은 팔계를 보더니 다짜고짜 창을 들어 팔계의 면상을 내 찔렀다. 팔계는 급히 갈퀴를 들어 창을 막았다.

그리하여 둘은 산기슭에서 싸움을 벌리었다. 그러나 미처 일여덟 합도 채 싸우기전에 팔계는 벌써 손맥이 풀리어 마왕을 당해낼수가 없었다. 팔계는 뒤를 돌아다보며 소리쳤다.

“형, 안되겠어! 어서 구멍줄을 끌어당기라구! 어서!”

이쪽에서 그 소리를 들은 오공은 구멍줄을 끌어당길 대신 도리어 늦추어놓았다. 이때 팔계는 싸움에서 지고 뒤로 뺄소니쳤다. 그런데 끌고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노끈이 돌아올 때는 잔뜩 늦추어져 발목에 감겨들었다. 그통에 팔계는 길바닥에 어꾸러지고말았다. 허겁지겁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내 또 발목이 걸려 넘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비칠거릴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코방아까지 찢었다.

뒤쫓아온 둘째마왕은 긴 코를 앞으로 쭉 펼치더니 교통처럼 팔계를 단번에 말아가지고 동굴로 돌아갔다. 삼천명 줄개들도 개선가 드

높이 마왕의 뒤를 따라 소굴로 돌아갔다.

멀찌감치 서서 그 정경을 바라보고있던 삼장은 오공을 꾸짖었다.

“오공아, 오능이 너를 죽으라고 저주한것도 무리가 아니로구나! 원래 너희들 형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혈뜬고 샘을 내고있었으니 말이다. 팔계가 것처럼 구명줄을 당겨달라고 했는데 너는 왜 당겨줄 대신 도리어 늦추어준거냐? 결국 팔계가 저렇게 요괴에게 잡혀갔으니 이 일을 어떡헌단 말이나?”

오공은 짐짓 웃으며 대답하였다.

“스승님은 정말 저 녀석을 너무 두둔하고계십니다. 제가 잡혀갔을적엔 아무 걱정도 안하시며 그저 죽어야 할 놈이거니만 생각하시더니 이번에 팔계녀석이 잡혀간건 완전히 제 잘못인데도 도리어 저를 나무라시는군요. 저 녀석에게도 고생을 좀 시켜보아야 경을 가지러 가는 길이 수월치 않다는걸 알게 될겁니다.”

“제자야, 그런게 아니다. 네가 갇을적이라구 왜 걱정하지 않았겠느냐? 다만 너는 둔갑술이 능하니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따름이지. 그렇지만 팔계녀석은 천성이 미련하기도 하거니와 특별한 재주도 없지 않나? 어쩐지 이번엔 길한것이 적고 흉한것이 많은것 같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그 애를 좀 구해주어야겠다.”

“스승님께선 원망하실것 없습니다. 제가 가서 그 녀석을 구출해 내지요.”

오공은 몸을 솟구쳐 산꼭대기로 뒤쫓아 올라가며 속으로 풀풀하였다.

(바보녀석이 나를 죽으라고 저주했다지. 네놈이 편안하게 되나 어디 두고보자. 우선 요괴가 그 녀석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고서 경을 좀 치르게 한 뒤에 구출해주리라.)

오공은 곧 인을 뺏고 진언을 외우더니 몸을 변혁여 하루살이로 둔갑하였다. 그리고는 썩 날아가 팔계의 귀뿌리에 내려앉아 요괴를 따라 동굴로 다가갔다.

둘째마왕은 3천명 줄개들을 거느리고 나팔을 불고 북을 울리면서 동굴어구에 이르렀다.

“형님, 내가 한놈 잡아왔소.”

둘째마왕이 안으로 들어서며 하는 말이였다.

“어디 나 좀 보자.”

큰마왕의 말에 둘째마왕은 코를 낮추어 팔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바로 이놈이요.”

“이건 별로 쓸모없는 놈이로구나.”

큰마왕의 이런 말에 팔계가 얼른 한마디 하였다.

“대왕님, 이왕 쓸모가 없는 놈이라면 저를 놓아주시고 쓸모있는 놈을 잡아들이도록 하슈.”

“쓸모는 없다 하더라도 역시 당승의 제자인 저팔계란 말이요. 잠시 묶어서 뒤뜰에 있는 못속에 담가둡시다. 털이 빠지기를 기다려 배를 가르고 소금에 절여서 벌에 말렸다가 흐린날 술안주나 하잔 말이요.”

셋째마왕의 말에 팔계는 크게 놀랐다.

“야단났구나! 절인고기장사를 하는 요괴와 맞다들었으니.”

작은 줄개들은 옥 달려들어 팔계의 손목과 발목을 한데 묶어 나무막대기로 꿰어서는 뒤뜨락에 가져다 못물속에 집어넣었다.

오공이 팔계의 귀바퀴에서 위로 날아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팔계는 사지를 위로 뻗치고 입을 잔뜩 물밖으로 내민채 헐떡거리고있는 품이 여간 가관이 아니였다. 그것은 마치 8, 9월 서리에 알이 말끔히 떨어져버린 런밭송이 같기도 하였다. 팔계의 그런 물골을 보는 오공은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다.

“별수 없구나. 저 녀석도 룡화회에 참가할 사람이 아닌가. 밉살스러운건 찍하면 보짐을 나누어가지고 흩어지려 하고 스승님을 꼬드겨 ‘금고주’를 외우게 하여 나를 골탕먹이려 하는거지. 일전에 오정의 말을 들어보면 저 녀석은 몰래 자기 염낭을 채우고있는 모양인데 그게 정말인지 어디 알아나 보자.”

오공은 팔계의 귀전으로 날아가 일부러 목소리를 바꾸어 불렀다.

“저오능아! 저오능!”

팔계는 물속에서 흠칫 놀랐다.

(이상한데? 오능이란 관세음보살께서 나에게 지어준 이름이고 내가 당승의 제자로 되면서 또 팔계라는 이름을 지어받았다.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내 범명을 아는 사람이 있는것일가?)

팔계는 참지 못하고 소리쳐 물었다.

“내 범명을 부른건 누구냐?”

“나다.”

오공의 대답이었다.

“나라니 누구란 말이나?”

“나는 저승차사이다.”

팔계는 다시 한번 와들 놀랐다.

“나리님, 당신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나는 다섯째염왕의 분부를 받고 너를 잡으러 왔다.”

“나리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 다섯째염왕께 품해주시시오. 염왕들은 저의 사형인 손오공과 자별한 사이니 하루만 밀렸다가 래일쯤 다시 저를 데려가도록 말입니다.”

“허튼소리 말아! ‘염라왕이 삼경에 죽으라면 누가 감히 사경까지 미루랴’는 말이 있잖느냐? 군소리 말고 어서 나를 따라나서라! 부질없이 포승을 지우기전에!”

“나리님, 살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얼굴을 좀 보십시오. 어디 살고싶어하는 얼굴입니까? 죽는데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저 하루만 더 기다려 요괴가 우리 스승님네들까지 다 잡아다 서로 만나도록만 해주시면 그것으로 모든게 끝장날테니까요.”

오공은 속으로 피식 웃으며 말했다.

“하느수 없구나. 이번에 끌어갈 생명이 모두 30명인데 다들 이 주위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잡아들인 뒤에 다시 너를 잡으러 오느라면 역시 하루쯤은 걸릴것 같다. 그래 나한테 진상할 로자라도 가진게 있느냐?”

“출가한 몸이라 저에게 무슨 로자가 있겠습니까?”

“로자가 없다면 포승줄이나 받아라! 어서 나하고 가자.”

오공의 으름장에 팔계는 텐겁을 하였다.

“나리님, 제발 포승만은 지우지 말아주시시오. 나리님의 그 포승은 ‘추명승(追命繩)’이라 그것에 걸박되는 날엔 숨이 지고만다는걸 저도 알고있습니다. 로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저 많지 못할뿐이지요.”

“어디 있느냐? 빨리 내나라!”

“제가 중노릇을 하기 시작한 뒤부터 오늘까지 신앙심이 두터운 시주들은 저의 식량이 류달리 큰것을 보고는 보시를 남들보다 조금씩 더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걸 제가 모아두었더니 푼돈으로 다섯돈가량

되더군요. 하지만 건사하기가 불편하여 언젠가 성안에 들어가 은장에게 청을 들어 그것을 한덩어리로 녹여붙였습니다만 그 은장녀석이 몇 푼 떼어먹고나니 겨우 녀돈 여섯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라도 가져가십시오.”

오공은 또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 녀석이 바지도 입지 않은 처지에 그걸 어디다 감추었을까?)

“그래 그 은전은 어디 두었느냐?”

“저의 왼쪽 귀구멍에 끼워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손발이 묶여 꺼낼수 없으니 나리님께서 손수 꺼내가십시오.”

오공은 팔계의 말을 듣고 곧 손을 뻗쳐 귀구멍에서 말안장모양의 은덩이 하나를 꺼내보니 녀돈 대여섯푼은 잘될것 같았다. 그것을 손에 든 오공은 더 참지 못하고 “으하하!” 소리내어 웃었다.

오공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팔계는 물속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벼락을 맞아 뒤여질 필마온녀석 같으니! 내가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도 형은 그따위 속임수로 내 재물을 빼앗아내는거야?”

오공은 또 빙그레 웃었다.

“이 밥통 같은 녀석아! 난 스승님을 보호하노라 갓은 교생을 다 겪고있는데 넌 자기 염낭만 채우고있었구나!”

“아니, 이것도 자기 염낭을 채운거라고 할수 있어? 먹고싶은것도 아껴가며 이새에서 굶어모은걸 가지구. 이젠 두었다가 천을 사서 옷이라도 해입으려던거였어. 내게도 더러 남겨놓으라구.”

“반푼도 너를 줄건 없다.”

그러자 팔계는 두덜거렸다.

“목숨을 사는 셈치고 형을 주겠으니 어서 나를 구해주거나 하라구.”

“급해말아. 내가 구해줄테니.”

오공은 은덩이를 감추어놓고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철봉으로 팔계를 끌어당겨 네각을 들어올려다 포승을 풀어주었다.

벌떡 일어선 팔계는 옷을 벗어 물을 쥐여짜더니 툭툭 털어서 그대로 어깨에 걸치었다.

“형, 뒤문으로 빠져나가자구.”

“뒤문으로 빠지는건 좀 비겁하지 않느냐? 앞으로 짓쳐나가자.”

“난 오래동안 묶여있었더니 발목이 저려서 걷기가 힘들구만.”